

미국 대학 중국관련 학과의 운영 실태 연구*

— 학과명 및 교수진을 중심으로 —

전 영 란**

<目 次>

- | | |
|----------------------|------------------------|
| I. 서 언 | VI. 미국인 교수 대 중국인 교수 비율 |
| II. 지명 중국관련 대학 및 학과명 | V. 결 론 |
| III. 교수진의 전공별 구성 | |

I. 서 언

본 연구는 미국의 중국 관련학과의 학과명 및 교수 구성의 특징을 살펴 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중국 관련학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학과명 및 교수의 전공별 구성의 특징은 그 학과의 교육방향과 성격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 대학 16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대학의 교수구성을 전공별 민족별(미국인 대 중국인 구성)로 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교수 현황에 관한 통계는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대학도 있지만, 전체 조사 대상학교를 일일이 방문하여 교수 운영 실태를 접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주로 당해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학 소개 자료(2004~2005년)에 의존

* 본 논문은 2003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미국에서 중국학연구로 유명한 16개 대학의 중국학 관련 학과의 명칭 및 학과의 유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관련학과 교수진을 전공별로 통계 분석하고, 교수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전공의 특색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 장, 절 마다 한/미 양국 중국관련학과의 학과 명칭과 교수 구성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중국관련 학과의 발전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

학과의 교육방향과 성격에 대해서는 당해 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위한 선행적인 연구로 본 논문은 미국대학의 중국관련 학과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중, 학과명 및 교수진 실태에만 국한하였다. 차후 교육과정 구성 및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계획이다.

II. 저명 중국관련 대학 및 학과명

미국의 중국관련 저명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작업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대학 랭킹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대학원의 경우 중국관련 학과의 순위는 타 학과들과는 달리 우선 공식적인 순위가 없었다. 2005년판 *2006 Edition American's Best Graduate Schools*의 전 미국 대학원 전공학과 서열분석에 있어서도 Business, Education, Engineering, Law, Medicine, Sciences, Art 등 이른바 인기분야의 전공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중국관련 학과의 순위(rank)에 대한 자료는 없다.¹⁾ 다만, 1997년을 기준으로 한 학부

1) U.S. News & World Report, *2006 Edition American's Best Graduate Schools*, WWW.USNEWS.COM; 일반적으로 미국대학에서 중국 관련 전공은 미국학생들에게 인기분야는 아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경우 10 여명의 대학원생이 수강하고 있는 어떤 과목은 미국학생은 단 두 명뿐 이고, 한국학

과정 중국관련 학과 자료는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2)

- 1-Harvard and Radcliffe Colleges
- 2-Cornell University
- 3-University of Chicago
- 4-University of Pennsylvania
- 5-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 6-Columbia University
- 7-Stanford University
- 8-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9-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 10-University of Hawai-Manoa
- 11-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 12-Yale University
- 13-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 14-Georgetown University

상기 대학들은 중국학은 물론 전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저명대학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상 15개 대학중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있는 저명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밖의 저명 중국관련 학과(대학)는 학부를 포함한 대학원과정을 둔 대학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대학 내 중국 관련 학과 교수들과의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쳤으며, 그 결과 16개 대학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Robert Joe Cutter 교수,³⁾ Nicole

생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학생이었다. 이 상황은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관련 프로그램은 비교적 많다. 교내 박물관에서의 중국관련 특별 전시회, 동아시아센터가 주최하는 특강 등 상당히 무거운 프로그램이 대략 2개월에 한번 정도 개최되었다.

2) Jack Gourman, Gourman Report of Undergraduate Program, Random House Inc., 1998.

Hwang 교수⁴⁾ 및 대학원생들의 협조가 컸다.⁵⁾ 최종 선정된 미국의 16개 저명 중국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 학교명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bara
University of Chicago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Princeton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Yale University

이상 16개 대학은 지역적으로 동부, 미드 웨스트(mid-west), 서부 대

-
- 3) Robert Joe Cutter 교수는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중국고전문학 담당교수로 당 대학의 The Center for East Asia Studies 소장을 다년간 겸직했다. 2005년 9월 학기부터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 4) Nicole Hwang 교수는 베이징대학 중문학과를 나와 University of California - Los Angeles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중국현대문학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5) 한국인 대학원생으로 이용윤 박사후보생의 도움이 컸다. 이용윤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대학에서 철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평양연안 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되어 있다. Harvard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Yale University 등은 미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The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등 6개 대학은 이른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중서부인 미드 웨스트 지방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Stanford University 와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은 서부 태평양연안 소재 소위 세계적인 저명대학들이다.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을 제외한 서부의 4개 대학은 캘리포니아 소재대학이다. 태평양연안 대학들이 중국 연구를 중시하게 된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동아권과 가깝고, 그 지역에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이민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 보겠다. 위 대학들 중, 동부의 5개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중/서부의 경우 University of Chicago와 Stanford University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주립대학들이다.

이상 미국 16개 중국관련 중요대학의 학과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함께 개설하고 있는 미국 명문 대학의 경우, 크게 네 유형의 학과(부)명 속에 중국관련 전공이 들어있다. 일본전공의 경우 중국 전공이 있는 대학은 모두 빠짐없이 일본전공을 동시에 두고 있으며,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 전공도 함께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및 일본 전공에 비해 한국전공 설치의 역사는 짧고 적다.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he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등 4개 대학이 동아시아 언어와 문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또는 아시아 언어와 문학과(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워싱턴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Harvard University와 The University of Chicago의 학과명은 동아시아 언어와 문명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 Civilizations)이다.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등 6개 대학은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 Culture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는 아시아 언어와 문화학과(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한편 Stanford University는 아시아 언어학과(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Princeton University와 Cornell University는 동아시아 연구학과(Dept. of East Asian Studies)라는 학과명을 사용한다.

위 대학들 중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의 중국학 전공은 1901년(일본학과 동시)에 설치되었고, 한국학 전공은 1942년에 설치되었다.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는 1936년부터 중국어(일본어와 함께)를 개강하기 시작하여 1937년 공식적으로 동양어학과(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s)를 설치하였다. 1948년 극동 아시아 언어와 문학과(Department of Far Ea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로 분리 개칭하였다가 1985년 현재의 이름인 아시아 언어와 문화학과로 바뀌었다. 한국어는 1960년대 초부터 개강했다.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은 2차 대전 때부터 동아시아 언어 교과를 개설했지만, 1991년에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학과 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전공이 있다. 1995년 까지 동아시아학 관련 박사 학위 배출지수에 있어서 미국 내 15개 톱 대학에 올랐다.⁶⁾ 위 대학의 학과들은 그들 학과의 연혁을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6) <http://www.ealc.uiuc.edu/about/department.htm>, 2005.8.28.

학교들은 학과 연혁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중국관련 학과의 경우,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학과명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종래의 중어중문학과가 중국학과, 중국어 중국학과 및 중국어 중국문화학과 등의 유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중양국의 정치, 경제적 교류증진에 따른 지식수요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보겠다. 권석환(2002)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4년제 대학 중 중어중문학과는 모두 58개교이며, 중국어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학과, 중국어과, 중국문화학과, 중국·경제학부 중국전공, 관광중국어과 등은 모두 54개교에 이른다. 이 통계에 따르면 중어중문학과는 모두 112개교중 거의 52%에 이른다.⁷⁾ 이는 위 16개교의 미국 대학중 25%만이 중어중문학과 유형의 학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록 이 통계가 미국의 전 대학을 조사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대비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즉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보다 실용화된 방향으로 중국학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시아관련 언어 및 문학 학과들이 중국어 중국문화학과 혹은 중국어 중국학과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 이는 곧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는 추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Ⅲ. 교수진의 전공별 구성

교수의 구성별 특징은 그 학과의 교육방향과 성격을 가늠하는 주요 지

7) 권석환, <한국의 중국어문학 교육·연구의 자체평가와 전망>, 《중국문학연구》 제25집, 2002.12 ; 이강재 <중국어문학 연구·교육자의 현황과 수요 변화의 양상>, 《중국문학》 제40집, 2003.11.

표가 된다. 본 장에서는 미국 주요 16개 대학 중국관련 학과 교수들의 전공별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과 소속 교수들의 박사학위 논문, 관심분야와 연구 및 강의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전공을 크게 중국언어, 중국문학(고대, 현대 구분), 철학(종교, 과학사 포함), 역사(문화사 포함), 그리고 중국어(실용) 및 기타 부문(정치, 경제, 사회, 인류학 등)으로 구분해 보면 <표 1>와 같다⁸⁾ 강사와 타 학과의 연계 강의 교수(affiliated professor)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후자의 경우, 정치학과의 중국정치론 개설 교수나 경제학과의 중국경제론 개설 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명예교수는 포함했다. 그 이유는 미국 대학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명예교수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각 대학의 전공별 교수 구성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는 강사의 비율은 제외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및 Stanford University의 경우 고대문학 교수가 숫자적으로 우세하며, The University of Chicago와 Columbia University의 경우 고대문학 및 문화와 역사 분야, Harvard University는 역사 및 철학 분야,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의 경우 철학 및 정치경제분야, Princeton University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경우 역사,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경우 중국언어학 교수가 숫자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 물론 문학분야를 고대와 현대문학을 합칠 경우, 언어, 역사, 철학, 기타 분야보다 그 교수 수는 절대 우세한 것이 Harvard University를 제외한 15개 대학의 공통된 특징이다.

문학의 경우, 고대문학 전공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를 비교해 보면,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Harvard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

8) 대부분의 자료를 각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존하다보니 보다 상세한 전공분야를 조사할 수 없었다. 어떤 대학은 교수의 전공분야를 상세한 소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 또한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각 교수에 따라 자신의 전공분야를 밝히기도 하고 밝히지 않기도 하였다.

Bloomington, The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와 Yale University 가 현대문학 교수 수가 우세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LA,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은 동수이다. 그 밖의 경우, 즉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등은 고대문학이 전공 교수 수에 있어 우세한 편이다.

<표 1> 미국 중국관련 학과 교수의 전공 분석

		중국 언어학	중국문학		중국 철학	중국 역사	실용중국어 (번역)	기타 (정치 사회 인류학 등)
			고대	현/당대				
UC-버클리	교수		1		1			
	부교수		2	1				
	조교수		1	1				
	명예교수	3(3)			1	1		
	강사	3(3)					2(2)	
UC-LA	교수			1		1(1)		
	부교수	1	2	1(1)				
	조교수							
	명예교수							
	강사	1(1)					2(2)	
UC-Santa Babara	교수		1	1(1)				1(인)
	부교수	1(1)	1		1			
	조교수			1				
	명예교수	1		1(1)		1(1)		
	강사						3(3)	
시카고 대학	교수		3(1)			2(1)		
	부교수			1(1)				
	조교수							
	명예교수		2(1)			1(1)		
	강사						3(3)	
콜롬비아 대학	교수				1	3		
	부교수		1(1)					
	조교수		2(1)	3(1)				
	명예교수		1(1)					
	강사						10(10)	

코넬대학	교수		1(1)					
	부교수				1			
	조교수		1(1)			1		
	명예교수							
	강사						4(4)	
하버드 대학	교수	1	1(1)	1	2	4		
	부교수							
	조교수			1(1)				
	명예교수							
	강사					1(1)	1(1)	
인디애나 대학	교수		1			1		1(정)
	부교수	1(1)		1(1)	2			
	조교수	1(1)						2(정 사)
	명예	1(1)	1(1)				1(1)	
	강사							
일리노이 대학	교수	1	1(1)			1(1)		
	부교수		1		1	1(1)		
	조교수	1(1)	1	2(1)		1(1)		
	명예교수			1				
	강사							
미시간 대학	교수			1(1)				
	부교수	1	1					
	조교수				1	1		
	명예교수							
	강사		1(1)				7(6)	
오하이오	교수						1	
	부교수	2(2)	1	2				
	조교수						1(1)	
	명예교수	1(1)	1(1)			1(1)		
	강사						1	
프린스턴	교수		1	1	1(1)	2		
	부교수							
	조교수		1			1(1)		
	명예교수							
	강사						4(4)	
스텐포드 대학	교수		1(1)					
	부교수	1(1)	1					
	조교수		2(1)					
	명예교수							
	강사						9(9)	

위싱턴	교수	1(1)	2			1(1)		
	부교수	1		1				
	조교수	1		1				
	명예교수						4(4)	
	강사							
위스콘신	교수	1(1)	2					
	부교수	1(1)		1(1)	1			
	조교수	1(1)						
	명예	3(3)				1(1)		
	강사						1(1)	
예일	교수	1	1(1)	1				
	부교수			1				
	조교수							
	명예교수							
	강사						11(10)	
<합계 비율>		26(19) 19.8%	39(14) 28.3%	24(10) 17.4%	13(1) 9.4%	25(11) 18.1%	7(6) 5.1%	4 2.9%

참고 : ()내 숫자는 중국인 교수 수. %는 각 전공분야 총 138명의 교수진(강사제외) 중 당해 전공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Senior Scholars(콜롬비아대)는 조교수에 포함. Preceptor of Chinese(하버드대학)는 강사에 포함

다음으로는 미국 주요 16개 대학의 중국관련학과 교수들의 전공 구성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강재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언어학, 중국어교육 및 통번역, 문학, 기타(정치경제, 역사철학, 문화 등) 등의 영역별 전공교수 구성비율은 각각 24.1%, 1.9%, 65.2%(현/당대문학 13.0%), 그리고 기타 8.9%(정치경제 4.7%, 역사철학 1.5% 등)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중국관련학과 교수의 전공별 비율은 중국언어학 19.8%, 중국어교육 및 통번역 5.1%, 중국문학 45.7%(고대문학 28.3%, 현/당대문학 17.4%), 역사철학 27.5(철학 9.4%, 역사 18.1%), 정치경제 등 2.8%로 나타났다.⁹⁾

첫째로 주목할 것은 중국문학전공 교수 비율이 미국 대학에 비해 한국 대학이 20% 이상이나 우세하다. 반면 중국역사철학 전공의 경우 미국에

9) 이강재, 앞의 논문, p.267.

비해 한국 대학이 25%이상 낮다. 사실 한국 중국관련 학과의 경우 중국 역사철학 전공 교수비율이 거의 전무한(1.9%)상태인 점에 비해 미국의 경우 전체교수의 1/4이상이나 되는 점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일이다. 중국언어학의 경우 실용중국어 및 통번역을 포함할 경우 양국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실용중국어는 중국인 강사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바뀐다. 정치경제부문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는 이유는 미국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중국정치경제 및 사회는 정치학과 또는 경제학과 소속 중국관련 교수가 연계강의 교수(affiliated professor)로 당해 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학제간의 협조가 우리나라보다 잘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문학의 경우 현/당대와 고대문학을 구분하면 우리나라는 고대문학의 비율이 절대 우세한 점에 비해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편이다(<표 2> 참조)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실용중국어 분야를 제외하고는 강사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언어학, 중국역사, 중국고대문학 부문에 각각 강사 1인이 있을 뿐 거의 모든 대학이 실용중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맡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와는 극히 대조적인 일이다.

<표 2>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국관련 학과 교수의 전공분야 구성 비교
단위: %

	중국 언어학	중국문학		중국역사 철학	중국어 (번역)	기타 (정치 사회 인류학 등)
		고대	현/당대			
우리나라 대학	24.1	52.2	13	1.5	1.9	7.4
미국 대학	19.8	28.3	17.4	27.5	5.1	2.9

VI. 미국인 교수 대 중국인 교수 비율

미국 주요 16개 대학 중국관련 학과 교수진 중 중국인은 총 138명 중 65명으로 47.1%에 달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그들의 전공과 직급을 보면 <표 1>내 ()의 숫자와 같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교수 비율이 아주 높다. 미국 내 중국관련 16개 유명대학 전공 교수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9%나 된다. 이는 미국이 다민족국가라는 점과 중국인의 미국 이민의 역사가 길다는 원인도 있겠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어 또는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당해 민족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미국의 학문적 조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

둘째, 전공별로 중국인 교수 강사 포함은 주로 중국언어학 및 현대 중국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중국언어학 및 실용중국어의 경우 전임이상 교수의 84.6%와 85.7%를 중국인이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문학과 역사의 경우 중국인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철학에 이어 중국정치경제분야는 중국인 교수의 비율이 더욱 낮다. 특히 정치경제분야는 중국관련 학과 전임 중국인 교수가 1명도 없다.

<표 3> 미국대학 중국관련학과의 중국인 교수의 비율

	중국 언어학	중국문학		중국 철학	중국 역사	실용 중국어 (번역)	기타 (정치 사회 인류학 등)	합계
		고대	현/상대					
전체교수 수(A)	26	39	24	13	25	7	4	138
중국인 교수 수(B)	19	14	10	1	11	6	4	65
전체 강사 수	4(4)	1(1)	0	0	1(1)	54(52)		60(58)
B/A(%)	73	35.9	41.7	7.7	44	85.7	0	47.1

참고 : ()내 수는 중국인 강사 수

셋째, 강사직을 포함할 경우 중국인은 하위직인 강사직에 많다. 강사직은 거의 중국인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용 중국어의 경우 강사 54명 중 52명(96.7%)이 중국인이며, 중국언어학, 중국역사, 중국고대문학의 강사 전원이 중국인이다. 반면 중국철학 및 정치경제부문에는 중국인 강사가 1명도 없다.

<표 4> 미국대학 중국관련학과 중국인 강사의 전공별 비율

	중국 언어학	중국문학		중국 철학	중국 역사	실용 중국어 (번역)	기타 (정치 사회 인류학 등)	합계
		고대	현/당대					
전체 강사 수(A)	4	1	0	0	1	54	0	60
중국인 강사 수(B)	4	1	0	0	1	52	0	58
B/A(%)	100	100	0	0	100	96.7	0	96.7

넷째, 중국어를 제외할 경우 주로 명예교수직에 중국인이 많다. 16개 대학 중국관련 학과 명예교수 24명 중 21명이 중국인이다.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철학이나 정치경제부문에는 명예교수조차 중국인은 1명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의 중국관련학과에서 전임으로 재직중인 중국인교수는 대략 10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인교수중 중국언어학 전공자가 절반이상이었다. 미국의 대학들이 중국어교육을 원어민에게 많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중국인 교수나 강사를 계약제로 초빙하여 중국어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10) 이 숫자는 한국중어중문학회의 《중어중문학》부록에 있는 명단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 필자가 너무 늦게 관심을 갖게 되어 상세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다. 중국인 교수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적은 것은 우리나라 혹은 동양과 미국의 사회적 구조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표 5> 미국대학 중국관련학과 중국인 명예교수의 비율

	중국 언어학	중국문학		중국 철학	중국 역사	실용 중국어 (번역)	기타 (정치 사회 인류학 등)	합계
		고대	현/ 당대					
전체명예교수 수(A)	7	5	2	1	4	5	0	24
중국인 명예교수 수(B)	7	4	1	0	4	5	0	21
B/A(%)	100	80	50	0	100	100	0	90

V. 결 론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미국의 중국 관련학과의 학과 명칭 및 교수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의 중국관련학과와 비교할 때 다음의 몇가지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학과 명칭에 있어서 권석환(2002)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 중어중문학과는 모두 58개교이며, 그 외 중국학과, 중국어과 등은 54개교로 중어중문학과는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요대학의 경우에는 중어중문학과 유형은 16개 대학중 4개대학으로 25%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창설이 늦을수록 중문학과보다는 비중문학과의 비율이 높아진 경향과 현재 몇몇 대학의 중문학과들이 비중문학과의 명칭을 바꾸고 있는 추세를 의미있게 설명해주는 비교결과이다.

둘째, 양국 교수진의 전공분야 역시 학과 명칭과 함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미국대학과 비교할 때 문학분야 특히 고대문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인이 아시아지역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의 민족의식과 선택하는 생활양식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미국은 다민족국가이다. 그러므로 미국대학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외국인교수 채용에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사회의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세계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자신의 본래 국적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다르다. 거의 모든 중국인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도 마찬가지이다.

학분야의 교수비율이 대단히 높다. 언어학 분야의 비율 역시 높으며, 상대적으로 역사철학의 분야는 낮다. 미국대학의 중국어분야 비율은 중국어강사분이기엔 중요한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이 교수진의 전공분야 역시 자연스럽게 학과명칭에서 보여주는 경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중국정치경제 및 사회는 정치학과 또는 경제학과 소속 중국관련 교수가 연계강의 교수(affiliated professor)로 당해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다. 학제간의 협조가 우리나라보다 잘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내 중국관련학과 교수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그것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중국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교수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중국정치경제나 철학분야의 중국인 교수 비율은 극히 저조하거나 전무하며, 직급별로도 주로 명예교수나 강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가 본래 의도하였던 바는 미국대학 중국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작업이 아직 미진하여 우선 이상과 같이 소략하게 미국대학의 중국관련 학과의 명칭 및 교수진들의 전공분야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본고에서 인용한 우리나라 대학의 통계 또한 그 시점과 대상범위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개략적으로는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이 비교해 보았다. 끝으로 중국문화회가 몇 차례의 워크샵과 학술대회를 통하여 기획 특집으로 발표한 한국중국어문화회의 《중국문학》 40집의 연구논문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참고자료>

- 권석환, <한국의 중국어문학 교육·연구의 자체평가와 전망>, 《중국문학 연구》 제25집, 2002.12.
 이강재, <중국어문학 연구·교육자의 현황과 수요 변화의 양상>, 제40 집

2003.11

정석원, 전국대학 중국관련학과(전공)의 교과 과정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그 대책, 《중국학보》 41 집, 2000.

김광조, <와싱턴 대학 아주어문학과 소개>, 《중국어문학》 제6집, 1983.10.

이장우·조미원, <하버드 대학의 중국어문학 연구>, 《중국어문학》 제39 집, 2002.6.

U.S.News & World Report, 2006 Edition American's Best Graduate Schools, WWW.USNEWS.COM

Jack Gourman, Gourman Report of Undergraduate Program, Random House Inc., 1998.

<http://ealc.berkeley.edu>

<http://polyglot.lss.wisc.edu>

<http://www.alc.ucla.edu/>

<http://www.lsa.umich.edu/asian/>

<http://deall.osu.edu/>

<http://lrc.cornell.edu/asian>

<http://www.indiana.edu/~chinlang/>

<http://www.eastasian.ucsb.edu/>

<http://www.princeton.edu/~eastasia/>

<http://www.fas.harvard.edu/~ealc/>

<http://www.ealc.uiuc.edu/>

<http://www.stanford.edu/dept/asianlang>

<http://www.columbia.edu/cu/ealac>

<http://ealc.uchicago.edu/>

<http://depts.washington.edu/asianll/>

<http://www.yale.edu/eall/>

〈中文提要〉

本研究關注與美國的中國學相關學科的學科名稱和教授組成特徵。目的是以此和我國的現狀相比較，從而發現我國的中國學相關學科的發展方向有需要改進的地方。因為學科名稱和教授專業別的構成體現學科的教學方向和特徵的主要指標。調查對象選定為設置了大學院碩/博課程的美國16所有名的大學，仔細觀察他們大學的學科名稱和教授組成。并把分析結果和我國大學的中國相關學科相比較時，可得出如下幾個觀點。

首先，關於學科名稱在權石煥(2002)的統計中，我國4年制大學中語中文系學科的共有58所，此外中國學科及中國語科等非中語中文系有4所，因此中文系超過了50%。但是美國開設有相關中國學科的16所大學中，僅有4所大學設有中文系不超過25%。由此結果可見在我國學科的建立中，中文學科相比的于非中文學科的比率有上升的趨勢，同時各所大學的中文學科有向非中文學科名稱轉換趨勢。

其次，可以看出兩國教授隊伍的專業領域也是造成包括學科在內的很多差異的原因。我國大學和美國大學相比較時，文學領域特別是古代文學領域的教授比率很高。語言學領域的比率也很高，相對而言歷史哲學領域比較低。美國大學在中國語領域中教授比率比較高，且大部分是中國語講師，因此，沒有重要的意義。同樣，教授隊伍的專業領域很自然的也體現出學科名稱發展的趨勢和軌跡。再者美國的情況，大部分的中國政治經濟、社會政治學以及附屬於經濟學科與中國相關的教授可通過兼課教授形式負責科目。應該看到在學制間合作方面與我國相比有很多這樣的長處。

最後，在美國國內與中國相關學科的教授中，中國人占據比率比我國高出很多，並且主要集中在中國語方面，而在中國政治經濟·哲學專業中教授的比率很低或基本接近于零，從級別上來看主要集中于名譽教授和講師。

주제어: 美國大學, 中國關聯學科, 學科名稱, 教授陣, 中國人教授